

■ (언론 동향) 2021.11.4. "YTN" 보도

○ '요소비료' 재고 '바닥'...내년 농사 비룻값부터 걱정

[앵커] 디젤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요소수 품귀'로 인한 대란이 자칫하면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소비료를 만드는 재고가 전년 대비 5분1 수준으로 거의 바닥난 데다가 요소값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세관에 내린 공문입니다.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나 칼륨, 인산 등 총 29종의 품목을 엄격한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와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올 들어 호주산 석탄 반입을 중단했고 그 바람에 자국의 전력에 문제가 생기자 요소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내 요소 수입의 3분의 2가 '중국산'인데 올해는 유난히 중국산 비중이 커져 9월까지 97%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 인도에 이어 2위가 한국입니다.

[최동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전 정부 FTA담당 국장) : 한국에다가 요소를 수출해 버리면 어쩌면 (중국) 자기네도 모자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안하는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우리가 요소수가 없으니까 큰 일 났다 수출을 해다오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국내 한 비료업체 창고 모습입니다.

요소와 칼륨 등의 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내년 생산 물량을 위해 유지해온 업체 전체의 재고가 평상시의 5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바닥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 등의 비료는 보통 작물 수확 전에 사용돼 올해는 벼농사만 보면 마무리돼 당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소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수입가가 급등해 현 유통가의 2배 인상이 불가피해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우 기자>

■ (언론 동향) 2021.11.3. "MBN" 보도

○ 비료도 대란 우려..재고 평소 10분의1인데 요소가격 3배 뛰어

【 앵커멘트 】 요소수를 만드는 원료인 요소는 농사용 화학 비료의 주성분입니다. 그런데 국내 비료 상황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재고량의 10분의 1 수준만 남아있는데, 원료 부족으로 내년 농사가 걱정입니다.

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시의 한 비료창고, 농한기라 쌓여 있는 비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비료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를 원료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요소 수입량 중 3분의 2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수입이 막히며 비료 원료 수급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국내에 남아있는 비료 재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

비료 생산을 위해 길이 막힌 중국 대신 중동산 요소를 수입할 수 있지만, 이미 중국 수출 중단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나 올랐습니다.

다음 달 농협과 생산업체 간 비료 가격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원료 수급이 어려워 비료 생산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비료 생산업체 관계자

- "제조업체, 농협과의 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비료 공급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은 농산물 가격에 바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인터뷰 : 홍황표 / 세종시 연기면

- "시골 사람들은 힘들어지죠. 하나 올라가면 요소 오르지, 논에 쓰는 비료 다 (가격) 올라가지..."

정부는 비료 생산업체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요소의 수입 창구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하지만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요소를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져, 정부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